

민주 상임위 활동 전면 보이콧

한 “시간끌기 더 이상 안돼” 계수조정 강행 예산안 정국 급랭... 타협안 모색 물밑 접촉

민주당이 3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심사 강행을 비난하며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격 거부하고 나서 종반을 맞은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긴요한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소집,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것을 비난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정국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성장률 하락치를 반영한 재수정과 부자감세의 철회, 지방재정 감소분 및 서민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성실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심의를 강행했다”며 상임위 활동 보이콧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함께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했으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고 모든 상임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의

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은 일방적 예산심의를 중지해야 하며 만일 단독심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권의 예산안 심사 강행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한나라당이 9일 예산안 처리라는 마지막 선을 미리 정해놓고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3당 대표 회동 제의는 예산안 처리를 노린 정치적 명분 축적을 위한 요사행위라는 인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함께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했으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고 모든 상임위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의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이 ▲세입안 수정 ▲감세법안 철회 ▲지방재정 대책 ▲일자리 대책 등 4대 대책의 선(先) 제시를 요구하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민주당이 2차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계수조정을 하지 않겠다며 예산안을 보이콧하더니 오후부터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며 “이는 국정 자체를 포기하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해당

상임위에서 협의를 통해 절충하고 남는 쟁점이 있으면 당 지도부가 조율하는 프로세스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선 상임위 절충-후 지도부 조율’ 방식으로, 상임위 심사에서 감세법안과 부가세 인하 등 핵심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예산을 우선 처리한 뒤 미쟁점 의제를 지도부간 회동에서 정치적으로 풀자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지경위,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 찬반 공방

“균형발전 철학·의지 후퇴한 개악” “지역·국가 경쟁력 동시에 향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3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이란 표현이 법률의 목적(제1조)에만 기술돼 있을 뿐 모든 부분에서 ‘지역발전’이란 용어로 대체되거나 삭제됐다”며 “‘균형발전’의 이념은 사실상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두영 수도권개발반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밀집

중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

민적 공감대 속에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대폭 후퇴한 명백한 개악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균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그 이념과 내용을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균형발전특별법 설립 근거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균형발전’의 의미를 아예 없애려는 의도”라며 “무차별적인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의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광역경제권 모델에 의한 지역개발은 거대 지역경제권을 형성, 지역·국가·글로벌 경쟁력을 패기

지로 향상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백화점식 개발이 지양되고 지역 간 창조적 연계협력과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성훈 강원대 교수도 “핵심적인 용어의 누락, 계획 및 사업의 확대 등 다소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소지는 있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적 기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차원이거나 지역적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법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예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타협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야 물밑 접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현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실무 간사 등 각급 단위별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여야 간의 예산안과 감세법안의 ‘패키지 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여야 ‘패키지 딜’ 할까

〈예산안·감세법안 맞교환〉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 다른 쟁점법안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락이어서 당장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각당은 당분간 예결위 등 해당 상임위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가운데 결국 예산안 처리의 변곡점은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심사 진전 여부가 될 것

이라는 데 공통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꾸준히 제의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역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에게 공식 만남을 제의했지만 박 의장이 정부의 감세법안 철회 및 부가가치

세 인하 수용, 일자리창출 대책 제시 등 선결조건을 내걸고 거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조기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쟁점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단계적 처리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쟁점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일괄타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합의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결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균특법 개정 반대한다”

여주시·완도군의회 등 결의문 채택

지방의회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하는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도서지역

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육지지역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개발대상으로서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도서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여주시는 총 317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유인도 49개 중 1개 도서를 제외한 도서지

역의 모든 교통수단을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육지와 단절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도군의회도 도서개발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결의문을 채택,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도서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유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7급 실용출수반
 슈퍼드림의 합격신화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따라가라! =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앞 (062)234-0234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최단기 필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한짱단과반 주부/대학생/직접인을 위한 9급 야간특설반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사회복지/출판직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발!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별 교재관람검출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건호지방술
 '09년 시험안내 개강 12월 15일 (주야간모임) (현재예약접수중)
 ◎ 시험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 시행
 ◎ 채용인원: 국가직 3,200명 모집, 지방직 예년수준
 ※공무원시험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응시가능한 연립제지
 ◎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 09~19시까지-
 ◎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 (英·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시 뒤 (중앙초교 후문앞)
 www.mdgosi.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명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 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발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국비지원 개강일정 예연 원 ☎ 971-0002 (구비미르 학원 옆 동문 4F)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업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매일 18(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기초 12월·기본서 1월 2일부터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고품질교재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원이전,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